다산포럼

다산의 부적(符籍)

박 종 권
호서대학교 AI융합대학 교수

고대 이집트에도 부적이 있었다. 태양을 상징하는 원을 다리로 받치고 있는 쇠똥구리 형상이다. 이른 아침, 쇠똥을 둥글게 뭉쳐 굴리고 가는 쇠똥구리를 보고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라(Ra)의 운반자로 여겼다. 이것이 황금 풍뎅이로도 불리는 '스카라베'이다. 동물의 배설물이 또 다른 동물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데 착안해 부활과 순환의 상징으로 삼았다. 왕의 묘에도 스카라베를 새겼으며, 일반인은 다산과 풍작을 기원하며 장신구로 지녔다. 영화 '알라딘'에서 요술램프가 숨겨진 지하 유적 입구를 여는 열쇠로 이 쇠똥구리 모양의 펜던트가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겠다.

갖가지 재앙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부적도 있다. 터키에는 '나자르 본주'라는 부적이 일상적이다. '질투의 유리'라고도 불리는데, 파란색 유리 가운데 검은 눈동자가 새겨진 모양이다. 악령이 푸른 눈을 한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미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고대 로마 '메두사의 눈'을 기원으로도 본다. 눈을 마주치면 돌로 변한다는 신화의 주인공이다.

중국에서는 자부선인이 황제 헌원에게 준 옥전결이 부적의 기원이라고 한다. 중국의 부적은 일반적으로 붉은 빛깔의 경면주사(鏡面朱沙)를 갈아 기름에 개어 쓴다. 종이는 괴황지(槐黃紙)가 원칙이지만 누르스름한 창호지를 쓰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지켜 준다는 뜻의 '오마모리'라는 액막이 부적을 신사나 절에서 판다.

이처럼 부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간에 널리 퍼져 있다. 원시신앙의 주술적 힘을 빌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소망의 발로라 하겠다. 보통 글자나 상형으로 그리는데, 영어의 철자인 스펠(spell)에 주문·주술·마법이라는 뜻이 담긴 배경도 여기에 있다.

부적은 우리나라 민중의 일상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 종류도 많다. 호부(護符)는 신불(神佛)의 힘이 있어 재액을 면하게 하는 부적이다. 삼재(三災)와 액운(厄運)으로부터 몸과 집을 보호하는데, 문과 벽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 복식(服飾)연구에서는 원시신앙에서 기원한 '신체 장식설'의 하나로도 본다. 음력 2월 초하룻날이면 기둥이나 서까래에 향랑(香娘)각시 속거천리(速去千里)라는 글을 거꾸로 붙이는 부적도 있다. 향랑각시는 배각류(倍脚類)를 통틀어 이르는데, 몸에서 지독한 노린내가 나 '노래기'로 불린다. 단오절에는 액막이 단오부(端午符)를 문에 붙이기도 한다.

실질을 숭상하는 다산 정약용도 부적의 힘을 믿었을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박석무 편역)에 부적 이야기가 나온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물려줄 밭 한 뙈기 정도도 장만하지 못했다면서 대신 평생 잘 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한다. 유산은 바로 '정신적 부적'인데, 근(勤)과 검(儉)두 글자이다. 다산은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라"면서 "근검 두 글자는 양전옥토(良田沃土)보다 나으니 일생 동안 쓰더라도 닳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부지런함(勤)은 '집안의 상하 남녀 간에 단 한 명이라도 놀고먹는 사람이 없고,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보여서는 안 되는 생활 태도'라고 정의한다. 검소함은 '의복은 몸을 가리기만 하면 충분하고, 음식은 목숨만 이어 가면 족하다'는 마음가짐이다.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변소에서 대변 보는 일에 정력을 소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근검(勤儉)이야말로 실사구시 부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야당 대선 후보가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고 나왔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부적의 힘이라도 빌리려는 이가 어디 정치인뿐이겠나. 공학박사인 어느 유명 언론인도 일본에서 구입한 부적을 지갑에 넣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도 골프 모자에 홀인원 부적을 붙인다. 모두가 불안하거나 족함을 모르기 때문이리라. 섬김과 정성 대신 군림과 부적에 익숙한 몰염치 지도자들은 다산이 사대부의 기본자세로 강조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마음에 부적으로 새길 일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한낱 사마귀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천명(知天命)을 지나서도 천명(天命)을 모르는 정치인은 만추(晩秋)에 목민심서라도 펼칠 일이다.

기 고

'디지털 영생' 불멸의 욕망

한 근 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기과 교수

불멸에 관한 관심은 인류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 고대사를 들여다 보면 기원전 3세기 중국 최초의 황제였던 진시황을 떠올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인도의 '리그베다'에는 "불사의 음료 암리타를 둘러싸고 신과 악마가 싸운다"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진다. 영생에 관한 인간의 욕망은 아마도 지구가 우주에서 사라져 버릴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인간은 아직 영원히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71년 남녀 평균 수명이 62.3세였으나, 2020년엔 81세로 늘어났다. 50여 년 만에 인간의 수명을 20년이나 끌어 올린 것이다. 최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게 느껴진다.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육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체적으로 불멸을 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 누군가의 기억과 정보가 합해진 하나의 디지털 존재로서 '디지털 영생'(digital immortality)을 이루는 것은 어떨까? 비록 손으로 직접 만질 수는 없겠지만, 정신적인 교감은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흔히 생물체의 두뇌를 제외하고 가장 복잡한 기계시스템을 우리는 컴퓨터의 두뇌인 CPU를 꼽는다. 두뇌의 뉴런의 개수만큼은 아니지만, CPU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transistor)가 집적(integration)된 매우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다. 여기서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로 두뇌의 뉴런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CPU의 내부의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는 마치 인간의 두뇌 속 뉴런처럼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한다. CPU 속 트랜지스터 하나가 스위치로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0과 1의 조합인 비트(bit) 신호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날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두뇌는 무수히 많은 정보를 축적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판단과 행동을 한다. 두뇌에 축적된 정보에는 첫사랑의 추억, 길 가다 넘어진 기억, 시험에 합격한 기억, 군 시절 기억 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섞여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디지털 기계장치의 늪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현대인의 족쇄, 신용카드를 생각해 보자. 내가 무엇을 타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식사를 위해 한식집을 갔는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는지, 누군가에 고백하기 위해 언제 꽃가게로 갔는지 등의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신용카드 사용 이력 확인 한 번으로 알 수 있다. 개미가 페로몬 향을 풍기며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듯,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종 디지털 기계장치로 인해 '디지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 누군가의 정보를 모아 모아 데이터화하고, 이를 고용량의 CPU로 정보를 이식한다면, '디지털 영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식된 CPU를 또다시 기계와 전자 감각기관이 잘 갖추어진 로봇에 이식한다면, 불멸은 물론이고 하나의 의식이 있는 존재가 새롭게 탄생될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정교한 기술로 마음이 이식되었다고 치더라도, 뭔가 석연치 않다. 마치 워드 프로세서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으로 문자를 복사해 찍어 내듯, 마음이 이식된 기계 덩어리도 최초의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보아야 할까? 그리고 이식되기 전의 내가 진짜일까 아니면, 로봇에 이식된 나도 여전히 나일까? 이 외에도 많은 의구심이 제기될 것이다. 언젠가는 마음의 이식이 크게 거부감 없이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만, 의구심은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늘 낮과 밤을 맞이하고, 매년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지구별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자연에 이치를 아직 거역하지 못한다. 필자는 우리의 생(生)과 사(死)는 지구라는 대자연이 선순환되는 원동력이이며, 인류가 영속되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렇다. 대자연의 구성 요소인 인간이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불멸을 위해 거역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대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 고

콘텐츠 금융과 문화산업

김 정 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BTS나 블랙핑크 등 아이돌 문화로 대표되는 한류가 이제는 콘텐츠 전반으로 확장되어 'K-콘텐츠'(K-contents)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 연구원은 영국의 전설적 록 그룹 비틀스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뜻하는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영국의 침공)에 비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례가 없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대부분은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콘텐츠산업의 총 매출액은 2015년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하였지만 90% 이상 기업들이 매출 10억 원 이하, 종업원 수 10인 이하, 자본금 10억 원 이하로 영세하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소식에도 국내 콘텐츠업계가 웃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53억 원이라는 제작비를 투자받아서 국내 연기자들과 국내 제작 인력이 국내에서 제작했지만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에게 돌아가 정작 국내 콘텐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일부에선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유통망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와 콘텐츠의 창의성을 보장하는 제작 환경이 콘텐츠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 콘텐츠의 경쟁력에 있어서 유통망과 함께 충분하고 안정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다.

실제로 콘텐츠 산업은 매체 즉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 방송은 방송사, 영화는 대형 유통 배급사, 게임은 주로 메이저 퍼블리셔(publisher)가 주도하는 산업이다. 또한 기획에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까지 제작하는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투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유치는 콘텐츠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이러한 콘텐츠산업의 현실과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유치가 콘텐츠의 성공을 이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콘텐츠 금융'이다. 과거 선물거래회사에서 외환 트레이더로 재직 중 IMF체제 하에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외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역 금융' 을 직접 경험했다. 당시 현장에서 무역 금융의 효과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기억은 무역 금융과 같은 콘텐츠 금융을 만들어 지역의 콘텐츠 산업에 적용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가령 대표적인 무역 금융 방식인 신용장 제도는 수출기업이 외국의 수입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고 상대방 거래 은행에서 신용장을 받으면 국내 은행에서 수출에 필요한 자본을 저리의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를 우리 지역의 콘텐츠 기업들에게 적용하여 해외 유통사나 글로벌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받은 콘텐츠기업에게 지역의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제작비를 대출하는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원금의 형태보다 지역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오늘날 글로벌 콘텐츠시장은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만 갖춘다면 새로운 활로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기회의 장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외국이 깔아 놓은 판에 우리는 그저 콘텐츠만 제공할 뿐이라고 자조 섞인 넋두리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콘텐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출 수 있다면 그 판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즉 외국이 깔아 둔 판에서 돈은 우리가 벌어 오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콘텐츠 금융을 바탕으로 우수한 지역 콘텐츠 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社 說

대권 경쟁 본격화 호남의 선택 더 중요해졌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결정됨에 따라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체제 속에서 치러진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완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선 20~30세대 및 중도층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민심의 선택도 대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및 진보 진영의 이재명-심상정 후보 간 연대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은 정권연장론보다는 정권교체론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군다나 최근만 해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훨씬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은 순전히 후보들 자신들에게 있다. 국정을 운영할 만한 자질과 품격 또는 비전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두 후보는 각각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은 좀처럼 마음 둘 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마땅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다걸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로선 호남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수도권으로 북상하지 않는다면 정권 재창출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로서도 호남의 지지 없이는 수도권 등에서 '호남 민심 확보' 및 '중도층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어느 후보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망 느슨해졌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1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차츰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불안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첫 주말인 6~7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광주시내 식당가와 카페에는 새벽 무렵까지 2030세대 젊은 층들로 가득했다. 일부 가게에는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덕분에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었다. 무등산·내장산·순천만 등에도 단풍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몰렸다. 백양사와 내장산 방문객은 지난달 23일 3634명에서 지난 6일에는 2만 452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주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추거나 길거리에서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다니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러다가는 코로나가 재유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지난 5~7일 광주에서 66명, 전남에선 88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와 기아차 광주공장, 나주 떡 제조 공장 등 대형 공장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드 코로나'는 경제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한 고육책이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망이 느슨해지면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 날씨가 추워져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다. 자신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자율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상 회복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無 等 鼓

대선의 법칙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은 대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호다. 가장 유명한 정권 교체 슬로건으로는 이승만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이 들고나왔던 '못 살겠다. 갈아 보자'가 꼽힌다.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이 구호는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시달렸던 민심에 불을 붙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갈아 봤자 더 못산다'는 정권재창출의 구호로 맞섰지만 민심의 호응을 얻어 내지는 못했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투표에서 지고도 개표에서 이기는'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유지했지만 끝내 민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채 4·19 혁명과 함께 처참한 몰락을 맞았다.

1987년 국민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까지 대선은 모두 일곱 번 치러졌다. 이 가운데 정권 교체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5대 대선(1997년),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선(2002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대 대선(2017년)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정권 재창출도 노태우 정부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14대 대선(1992년), 김대중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16대 대선(2002년),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18대 대선(2012년) 등 세 차례 있었다. 이로써 진보 정권 10년과 보수 정권 10년 등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가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선의 법칙'이 자리를 잡게 됐다.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번 대선에도 '10년 주기론'이 적용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정권 교체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핵심 요인은 따로 있는 듯하다. 시대적 상황과 후보의 역량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결국 대선의 법칙은 시대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움직여 승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연 어느 후보가 대선의 법칙을 증명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